

[주제발표 1]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실천을 위한 재고^{再考}

- 김 혜 선 (명지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

Ⅰ. 국가고시 누리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보)육과정이다(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역·유치원·개인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통합적으로 실천해가는 유아중심교육과정을 제시해왔다(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2007).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적인 유아중심 교(보)육과정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2012년에 고시된 누리과정의 구성방향과 편성·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 가.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 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라.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 바.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편성

- 가.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나.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 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 라. 반(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 마.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 바. 일과 운영시간에 따라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3. 운영

- 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나.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다. 유아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 라.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 바.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누리과정 활동이 개선 되도록 한다.

4. 교수 · 학습방법

- 가.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
- 라.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바. 실내 · 실외활동, 정적 · 동적활동, 대 · 소집단활동 및 개별활동, 휴식 등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II. 누리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 본질의 의미와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교사수준으로 재구성되고 다시 학습자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이기숙, 2013).

이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기관의 교(보)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재구성이란 기관의 철학, 지역사회 요구, 교사들의 신념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관의 교(보)육과정이 재구성되고나면 다음으로 교사의 수업계획이 이루어진다. 계획된 수업은 유아들의 수준에서 즉 유아들의 흥미, 반응, 관심에 따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국가수준 누리과정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숙지하고 수업을 통해 성공적인 누리과정을 완성해 내는 중심에 있다.

본 고에서는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운영한 수업사례¹⁾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를 통해 교사의 교(보)육과정 재구성 과정을 살펴보고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보)육과정의 핵심 이슈issues를 찾아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사회적 함의를 탐고자 한다.

1. '주제 중심' 의 수업운영

가.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한다는 것은?

누리과정 :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와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누리과정」은 각급 학교의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달리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을 지향한다. 즉 유아들의 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찾아 주제를 탐색하는 활동들 안에 여러 교과요소를 통합한다. '주제'는 예전부터 다루어 오던 주제, 가까운 사람들, 주변의 현상과 사건, 사물, 관계에서 생기는 일, 사계절과 자연, 절기와 전통, 사회적 이슈, 미래사회의 일 등, 유아들의 생활

1) 본 고에서 소개된 사례는 「주제접근에 의한 만 4~5세 종일제프로그램」에서 요약 발췌함

속에서 찾는다. 누리과정은 유아들에게 다룰 수 있는 주제와 활동들을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다.

현장 실천의 과정에서, 이 주제들이 매 월(주)의 제목, 활동을 묶는 소재, 연간 교육계획안의 목록만 되고 있는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학급의 유아들에게 생기는 일들과 흥미와 관계없이 교사의 계획으로만 존재하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이 교실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수업의 주제로 선택되는지, 즉 기존의 주제와 지금의 주제들을 균형있게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는 활동 제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 주제를 다루는 이유,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누리과정 :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

주제는 유아들의 생활에서 이미 경험한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앞으로 경험이 될 만한 것이라 예측되는 것들로 정해질 때 교육적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예를들어 주제 ‘가족’은 유아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는 주제라 할 수 있다.

현장 실천의 과정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 ‘가족’의 내용을 담은 여러 교과와 연관된 활동들, 행사 등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나 이 많은 활동들이 유아들 수준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알도록 돕고 있는지, 활동의 소재 자체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주제로 인해 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가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업이 되기 전에 교사는 주제 ‘가족’을 선정하는 이유와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이 수업이 유아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지 재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례 : 가족의 교육내용 중, 최근 사회의 변화로 인한 재혼가정과 이혼가정, 맞벌이 가정, 외부 모·조부모 가정, 떨어져 사는 가족 등 가족구성의 여러 유형이 있음을 조사하고 재해석한다. 또한 가족은 어떤 상황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교육의 의미로 한다.

2. '놀이 중심' 의 수업운영

누리과정 :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놀이를 중심으로 수업한다는 것은 교사가 계획한 활동도 놀이처럼, 유아들의 놀이도 수업의 장場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동안 계획된 여러 활동들이 유아들에게는 흥미 있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져야만 한다. 반면,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놀이(예: 엄마 아빠 놀이)에서도 가족에 대한 교육내용이 다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실천의 과정에서 교육 내용이 놀이로 접근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유아들이 교사가 계획한 여러 활동들에서 정말 즐겁게 놀고 있는지, 공부를 하거나 수업시간, 이야기나누기시간으로 힘들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아들의 모습을 세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정말 노는가?' 유아들이 놀 때의 모습은 즐거워하고 '몰입'을 해야 한다. 창의적인 발상도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놀이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유아들의 활동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수업이 놀이로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가. 유아가 즐거워하는 활동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교사가 준비한 활동을 유아가 놀이처럼 느끼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고 흥미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활동은 유아들의 지적·신체적·정서적 수준에 적합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혼가정들도 행복해야 하는 것을 만 4~5세 유아들도 배워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교사들의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다. 유아들의 발달을 고려하여 문학적 접근으로 도전해 보기로 합의하고 재혼가정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화를 찾기로 한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델과 그레델' 그리고 전래 동화에도 '콩쥐팍쥐' '장화홍련'등을 찾아낸다. 그 중 '콩쥐팍쥐'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듣고, 콩쥐와 팍쥐인형 놀이를 1주 이상 놀아 본 후, 그 후속활동으로 새로 만난 콩쥐네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문학작품을 현실로 여기고 인형을 살아있는 콩쥐와 팥쥐로 여기는 몰입론적 사고의 시기라고 판단한 접근이다. 이 활동은 누리과정에도 없고, 이전 수업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다루지 않은 활동으로 교사들의 창의적인 활동이다. 학급의 유아들이 즐겁게 놀고 그 놀이에 교육의 내용을 담고자 하는 수업연구의 결과물이다. 때때로 일반화된 활동들이 우리학급의 유아들에게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활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존의 활동들도 지금, 우리 학급의 유아들에게 의미가 있도록 재구성, 재조직 되어야만 유아들이 흥미 있는 놀이로 참여할 수 있다.

나. 유아의 흥미가 수업이 된다는 것은?

교사의 계획대로 수업이 끝날 때는 교사의 일방적 주도이거나 유아들에게 매우 적합한 완벽한 수업설계가 되었을 경우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실의 상황이 항상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경험한다. 유아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 즉흥적이며 교사가 전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 늘 존재한다. 교사들은 이 상황을 잘 통제하여 자신의 계획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보다 민주적인 교실은 유아들의 흥미가 반영되어 수업의 변형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누리과정 :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려면 교사들은 유아들의 활동과 행동, 이야기, 상황 등을 매우 깊이 있게 관찰, 나아가 정찰(reconnaissance)의 수준까지 필요하다.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가 교육의 상황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그 선택에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기준이 된다. 교육적 가치라면 누리과정에서 고시하는 교육목적과 목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범교과적 교육내용 등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기관과 교사의 철학과 신념을 담을 수 있다. 또한 유아의 흥미로 선택된 활동은 흥미가 있는 한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흥미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실천의 과정에서 하루일과 안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과 유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시간이 균형적인지,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에도 유아가 흥미 있게 참여하는지,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수업이 심화·확장되는지 지속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례 : 공쥐와 팔쥐 인형을 가지고 극놀이를 하는 유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유아들 대부분이 예쁘게 생긴 공쥐 인형만 가지고 놀겠다는 것이다. 유아들은 뚱뚱하고 못생긴 팔쥐를 싫어하고 있음을 판단한 교사는 유아들과 이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교사는 공쥐로 하여금 팔쥐가 뚱뚱하지만 힘이 센 강점을, 입이 크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당했지만 노래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한다. 유아들은 다시 두 인형과 같이 놀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새로 만난 공쥐네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유아들 간의 갈등을 접할 때, 일부 교사들은 서둘러 상황을 철회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쉽다. 사례에서 교사는 이 상황이 외모에 대한 편견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계기로 판단하고 교육의 상황으로 선택한 것이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평상시 주제를 설명하는 ‘이야기나누기’시간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장면이 진정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라 할 수 있을까? 유아들의 놀이에서 발생한 일들은 아주 흥미 있는 이야기 거리가 되며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유아들은 간단한 설명으로 주제 안에 담은 의미를 이해하는 연령이 아니다. 충분한 놀이와 경험이 있어야 「누리과정」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그리고 자연의 원리와 이치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수업은 교사의 계획으로 출발하여 유아에게서 완성되는 것이다. 좋은 수업은 교사와 유아들에 의해 함께 만들어지고 교사와 유아가 상호조정적 관계가 유지될 때 가능하다.

3. 발현적 상황의 의미

가. 유아들의 생활 속 수업

유아교육과정의 개념은 교수계획, 교수요목,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경험 등의 교육과정과 더불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이기숙, 2015).

유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 주변의 사건과 소식, 물체의 특성, 자연의 모습과 원리, 새로운 매체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의 여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사전에 수업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발현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 유아들이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교육적으로 재조명하고 창의적으로 수업을 계획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간의 능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생활 속의 경험이 소재가 될 때 유아들은 적극적이고 흥미를 가지게 되고 문제 해결과정에서 유아들은 주변과 능동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문제해결의 결과는 유아들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 된다.

현장 실천의 과정에서 유아들이 하루일과중 제일 좋아 하는 시간은 ‘자유놀이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간이 교사가 계획한 시간으로 인해 놀이를 지속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자유선택활동이지만 교사가 권유하는 활동들(꼭 해야 할 일하기, 생활주제에 맞는 놀이하기 등)로 인해 마음대로 놀지 못하는 경우, 또는 교사의 상호작용과 역할이 전혀 없이 안전한 놀이를 보호하는 정도의 시간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유아들이 충분히 자유로운 놀이를 할 때만이 ‘우연한 것으로의 교육과정’ 실현은 가능하다. 유아들의 놀이 안에 생기는 일들을 전문적이고 예민한 관찰을 하여 수업으로 포착하는 것이 교사의 또 하나의 역할이다. 이때 교사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수업운영이 가능하며 이 수업이 유아교육과정의 특징이며 최대의 장점이다(명지전문대학 유치원교육과정, 2015).

사례 :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식구를 소개하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 교실에 새로 주문한 나무 적목(48개 블록)이 배달된다. 목수할아버지는 적목을 같이 나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유아들은 목수할아버지를 돕기를 원하고 관심이 높다.

우연한 상황을 교사가 자신의 수업으로 받아들여려면 많은 갈등이 있다. 제일 먼저 교사는 교육적 가치를 찾는 일일 것이다. 즉, 교육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한 후에, 유아들의 활동으로 가능 여부와 수업으로 선택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교사의 이론적 지식과 교육경험,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와 수업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

교사는 적목을 나르는 활동에는 함께 협력하기, 물체의 특성을 이해하기, 언어영역 의사소통하기 등의 교육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을 나누던 이야기를 멈추고 할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서로 합의한 결과는 적목을 다 같이 나르고, 이야기를 나누 후에 바깥놀이는 조금 짧게 놀기로(축구를 전반전만 하기로 합의) 했다. 유아들의 활동은 적목을 함께 나르기/적목을 크기와 색깔별로 분류하기/새적목 정리표 만들기 할아버지께 적목이 만들어지는 과정 듣기 등의 활동이 진행 되었다.

‘적목 나르기’는 유아들의 생활 속 소재이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5개영역의 교육내용 외에도 배려와 협력,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중,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등의 교육적 경험을 한다. 이는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방법’ 뿐 아니라 ‘구성방향’과도 일치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계획된 활동과 더불어 놀이 안에 교육적 요소가 담겨 있다. 그동안 누리과정의 실천을 교사의 체계적인 계획으로만 기울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유아들의 생활 속에서 진행 된 일들은 지금의 삶에 필요한 수업이 된다.

나. 유아들이 몰입하는 수업

사례 : 새적목을 나르는 유아 중 한 아이가 ‘헌 적목을 버릴꺼예요?’ 라는 질문을 한다. 목수 할아버지는 ‘왜 버리려고 해, 아직 쓸만한데, 못 몇 개 박고, 페퍼질 해서, 페인트 칠 하면 2년은 더 쓰겠는데’ 라는 대답에 유아들은 헌적목 고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했다.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는 매우 즉흥적이다. 이때 상황을 발견하는 것과 교육적으로 분석해 내는 일, 그리고 수업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은 교사의 의사결정으로 선택된다. 이 상황을 ‘주제’ 혹은 ‘프로젝트’로 선택하려면, 교사는 진행되고 있는 수업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선, 활동에 흥미를 가진 유아들의 수와 예측되는 활동 내용에 따라 수업시간, 활동장소, 진행기간 등을 예상하여 기존의 진행되던 수업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수업을 다시 계획하여야 한다.

사례 : 교사는 '현적목 고치기'의 의미를 찾는다. 적목 고치는 일이 '목공놀이'가 될 수 있겠다는 점, 진행되는 수업과 병행해서 바깥놀이에 영역을 구성하여 진행이 가능한 점, 목수할아버지의 관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이 조건들이 교사로 하여금 도전 해 보도록 했다. 그리고 교사는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도록 수업의 보조 인력을 구할 방법, 목공도구 준비, 주변의 페인트 가게나 목공소의 위치 등, 활동을 예상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사전에 모색했다.

유아들의 흥미에 의해 발현적으로 진행되는 수업도 유아들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면밀히 관찰하여 유아들의 요구와 진행에 맞게 적절히 지원한다. 지나치게 서둘러 개입하여 이끌려고 하지도 않고 유아들에게 온전히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참여한다. 즉 유아가 필요한 만큼의 조절된 지원 offering just enough assistance을 하기 위해 유아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교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김혜선, 2015). 교사의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교사도 늘 유아들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의 위치에서 유아들과 합의하고 자신의 계획과 준비를 조절하고 수정한다. 이때 유아들은 활동에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이 교사와 유아가 함께 수업을 주도하는 교실의 모습으로 진정한 아동중심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기숙, 2015).

사례분석: 현적목을 고치는 프로젝트는 경제교육, 모든 상황을 의논하는 동안 의사소통과 토론 중심 교육, 민주적인 결정 절차를 경험하고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각각의 유아들은 현적목을 고치는 동안 자신의 강점이 나타났다. 못을 잘 박았던 유아, 페인트의 색깔을 잘 만드는 유아, 적목 정리표를 잘 만들던 유아, 여러가지 역할을 잘 분배하던 유아, 남을 잘 돕던 유아 등등, 사람의 능력이 각각 다르며 모두 소중함을 아는 반면견 교육과정도 포함되었다. 또한, 유아들은 자신들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성향도 나타났다.

유아들의 삶에서 교육의 의미와 유아들의 관심을 발견하는 일은 국가고시 「누리과정」을 실천하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계획한 준비한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만 익숙해 왔다면, 유아들의 주변과 일상에 무수히 많은 주제와 활동, 교육의 요소들을 발견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Ⅲ. 2020년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제언

2012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유아들이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 우리나라 유아들이 놀면서 성장 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교(보)육과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변화로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야 하는 유아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의 놀이가 있고 그 놀이 안에 교육과 보육이 존재해야함을 전제로 다음의 제언하고자 한다.

1. 균형적인 누리과정: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기관의 자율성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은 국가가 지향하는 일반적이고 공통적 기준과 더불어 유아·교사·기관·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균형적으로 추구함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 누리과정 지도서에 제시된 놀이중심의 활동예시를 활용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지도하게 된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국가고시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로 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누리과정 교사용지침서 p6) 즉, 지도서의 활동은 예시로서 현장의 재구성을 더욱 강조 할 필요가 있다.
- 누리과정의 지도서와 교사용 지침서는 교사의 계획 된 활동들과 더불어 유아들의 자유스러운 놀이를 지도하는 지침과 사례제시 등 균형적 안내가 필요하다.
- 기관평가의 경우, 누리과정의 공통적 지향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단위 기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율적인 실천을 인정하고 평가 할 필요가 있다.

2. 유아들의 놀이가 수업이 되는 누리과정

만 5세 미만의 어린 유아들은 ‘놀면서 배운다’는 기본 원리를 원칙으로 「누리과정」의 개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유아들은 마음껏 놀고 그 안에 교육을 담고 의미를 찾는 일은 어른들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 면담 : · 생활주제에 맞는 활동들이 때로는 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를 제한한다.
 - 생활주제와 지도서의 활동들이 간혹 꼭 해야 할 수업으로 접근 되는 경향이 있다.
 - 활동 중에는 유아들의 수준보다 높거나 지식중심의 활동이 있어 수업 진행이 어렵다.
 - 어린 유아들은 생활주제보다 작은 주제와 활동으로 운영될 때 놀이가 가능하다.
 - 방과 후 특별활동은 교과활동 시간으로 유아들의 오후는 피곤하다.
-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와 생활 안에 잠재된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교육의 상황으로 이끄는 역량이 필요하다.

3. 교사들의 수업연구: 수업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교사들은 현장의 실천을 넘어 수업을 연구 할 전문성과 열정이 필요하다. 기관에서는 하루일과를 마치고 교사들의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지역별 수업연구 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

- 수업을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 견해로 비평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수업연구이다.

수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명확한 과학적 기준으로만 수업을 보기 보다는 수업의 예술성에도 주목하여 수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이혁규 외 2014).

- Isner(1983)는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교사가 내려야 하는 판단과 행동 사이에는 매우 넓은 간격이 존재하며 과학적 발전과 구체적인 실행 사이의 틈새에서 가르침의 예술성과 기예설이 중요해진다고 언급함으로써 양자의 상호 보안성을 지지하고 있다(p87).

끝으로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들의 ‘놀 권리’를 찾아 줄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수업을 연구하는 교사의 권리도 함께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고시 누리과정 제정’과 함께 ‘현장 실천의 전문성’이 함께 요구된다, 2020 누리과정은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누리과정’의 실현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2). 보도자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
고시.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침서.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김혜선(2015). 유치원교실에서의 협력적인 상호작용. 공동체.
- 명지전문대학 부속 유치원 편(2004). 만 4~5세 주제접근 통합과정에 의한 종일
제 프로그램. 양서원.
- 명지전문대학 부속 유치원 편(2015). 명지전문대학 유치원교육과정. 공동체.
- 이기숙(2015).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 이혁규 외(2014). 수업비평의 이론과 실제. 교육공동체 벗.